

낯선 세계에 다가가는 노력

최현정*

평소 ‘미지의 세계’ 아프리카를 동경했고, 선생님의 활기찬 강의 소개에 빠져버린 나는 2004년 2학기 내내 ‘스와힐리어와 아프리카 문화’ 수업을 청강(썩이나!)했다. 일년 후 ‘스와힐리어와 아프리카 문화 2’ 수업이 처음 개설된다는 것을 알고 수강 신청을 했다. 열 명이 채 되지 않는 수강생 중 한 학생이 ‘소그룹 세미나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같이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는데, 그에 동의하면서 나의 졸업 학기는 화려해져버렸다.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공은 작곡·통계학·간호학·천문학 등으로 다양했지만, 모두 아프리카를 알고 싶어 했다. 초원에서의 사파리 혹은 굽주린 아이들의 이미지만으로만 떠오르는 것 이상의 아프리카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자료가 별로 없었다. 몇 가지 소주제를 정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데, 한글 자료가 많이 있는 주제를 고르기 위해 구성원들 사이에 은근히 신경전을 벌였다. ‘심성이 착한’ 구성원들은 밤새워 영어로 된 자료를 읽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공부하는 것 만큼이나 우리가 공을 들인 것이 아프리카 사진전 ‘오늘, 아프리카에 살다’의 준비였다. 우리가 본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생각보다 엄청난 작업이었다. 연구차 여러 번 그곳에 가셨던 선생님이 찍어 오신 몇십기가(GB)의 사진들, 그곳을 여행했던 학생이 찍어온

교육 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천문학전공 석사과정 2004학번. ‘제3회 학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제2 유형 3ma Group Seminar 참여자 (연구 주제: 스와힐리어와 동아프리카 지역 연구).

필름 사진에서 전시용 사진을 추려내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았다. 블라인드를 내린 어두컴컴한 강의실에서 눈이 빨개지도록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일을 며칠이나 계속했다. 사진 인화, 액자 맞추기, 후원자 찾기, 포스터 디자인하기, 포스터 붙이기, 사진 설명 쓰기, 전시장 섭외하기, 전시 당일 전시장 관리 일까지, 크고 작은 많은 할 일들이 있었다.

힘들 때면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 누가 하자고 그랬어!”라고 말하며 제안자에게 눈치를 주곤 했다. 나 역시 모든 것은 내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마지막 학기에 완전히 밀려버렸군”이라고 푸념한 적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고백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힘들기만 했다면 우리의 작업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모든 것이 쉽기만 했다면 세미나가 끝난 후의 충만감이 이만큼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차츰 ‘미지의 세계’가 아닌 역사적 맥락 속의 아프리카와 그곳 사람들의 생생한 삶을 만나게 되었다. 5